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 공유

남원시, 전 직원·보조사업자 1000여명 대상 재정 여건·건축재정 이해 교육 실시

남원시는 29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과 보조사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시 재정 여건 및 건축재정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 남원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고물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시민들의 일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민생활밀착형 예산 편성에 더욱 집중한다고 밝히며, 먼저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을 확대, 총 8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장애인 연금의 차질 없는 지급과 함께 중장년·청년층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운영 10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7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 누리행복센터 운영 14억원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한 출산·육아·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회관 건립 50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31억 등 사회복지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총 263억원을 투입,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 320억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빈집 매입 사업에 37억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



남원시는 29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과 보조사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시 재정 여건 및 건축재정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획이다. 이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환경개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 지속 등 총 123억원을 투입하여 재정·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남대 폐교로 붕괴된 지역 상권 복원과 교육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북대 대학협력지원 44억원, 바이오소재 산업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구상과,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받아 청년 창업농을 집중 육

성하고, 농산물 과잉 대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 안정화기금 100억원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건축재정 기초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놓치지 않고 편성에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천만관광 이끌 옥정호 현장 방문

임실군 옥정호 주요 사업장 현장 행정 나서

임실군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이끌어 갈 섬진강 르네상스의 핵심인 옥정호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의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난 28일 봉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옥정호 왕벚나무길 데크길 조성사업 등 옥정호 주변 관광산업의 주요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현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85억원)은 옥정호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약 46,000㎡ 부지에 300여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2월 1차분 착공 후 올해 3월 2차분 착공을 하여 내년 6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자라섬 연계 관광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정호 왕벚나무길 조성사업(30억)은 임실군의 대표 둘레길로 부상한 물안개길 7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조성된 L=1.8km에 새롭게 조성하는 L=2.0km를 추가하여 데크로드와 보행 매트, 쉼터 2개소 등을 조성한다.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8월 착공해 내년 12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임실군 천만 관광의 핵심이 될 옥정호를 전국적인 관광



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제반여건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심 군수는 또한 옥정호 일원에 한우 맛집·카페·로컬푸드직매장 등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먹거리 시설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군은 케이블카·집라인·모노레일 등 체험 관광시설까지 갖춰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수시로 담당 부서와 현장을 찾아 사업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선 8기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축산 악취 문제 해결 정비 '탄력'

순창군,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총 사업비 180억원 확보

순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군은 29일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순창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지역 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 재생과 주거 안정, 생태복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지는 인계면 농동리와 순창읍 장덕리 일대의 대규모 축사 외 폐비공장이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복합악취 발생과 토양·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었다.

군은 문제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역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양지천 생태복원, 주민쉼터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 휴식 공간 마련, 생태 환경 개선 등 다각도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외에도 그동안 축사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던 노동, 장덕 등 인근 마을에도 슬레이트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이번 사업으로 병행해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동안 악취로 고생했던 순창읍, 인계면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오수면 한암마을 경로당 준공식

임실군이 오수면 한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한암마을 경로당 준공식이 29일 한암마을 광장에서 열렸다.

준공식에는 심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및 기관단체장들과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암마을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



2024.08.29 임실군 오수면 한암마을 경로당 준공식 및 화합행사

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1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주택, 경관 및 환경, 안전, 위험 시설 등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신축과 광장 포장을 추진했다.

취약했던 한암마을을 종합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전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제안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최경식 남원시장은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7월 한달간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제안된 299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과 읍면동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시민과의 소통 현황을 점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점검했다.

세부 추진 현황을 보면 △해결 22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98건 △검토 121건 △상담기판 건의나 유관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1건 △법령·제도 및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처리 불가능으로 수용 곤란 사항도 47건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전체 건의사항 중 130건이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가드레일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주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됨을 지적하고, 이 중 시급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해결에 나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서비스 시작

남원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29일 남원시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개편된 누리집은 민선 8기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액티브함을 적용한 공약이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열린시장실 전면 개편, 이용자의 다양한 조작성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서비스, 시민제안과 설문 등의 유기적인 연결로 시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한눈에 보는 축제 행사, 실시간 주차정보 등을 제공했던 순창읍, 인계면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한 다양한 스마트기기 이용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동행과 포용을 위한 모바일 음성인식 검색 지원, 전자점자서비스, 편안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다크모드 서비스까지 요소요소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홍미선 홍보전선과장은 "개편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고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5년 한센병사업 대상자 생계비 지원 신청

순창군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병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신청을 오는 9월 6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한센병 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2025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60% 이하)에 적합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재가 한센인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보건의료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사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